



INTERNATIONAL JOURNAL of
CRAFTS and FOLK ARTS
Volume 3, 2022

대담

창의도시 사업 추진의 난점과 해결 방안

주세페 비아기니
(Giuseppe BIAGINI, 카라라, 창의지식재단 창립자)

정병훈
(Byung Hoon JEONG, 진주, 포컬 포인트, 경상국립대학교 명예교수)

로니 로피스
(Ronny LOPPIES, 암본, 포컬 포인트, 파티무라대학 교수)

위티야 피통나푸
(Witiya PITTUNGNAPOO, 수코타이 UCCN 포컬포인트, 나레수안대학 교수)

비토리오 살모니
(Vittorio SALMONI, 파브리아노, 포컬 포인트, 이탈리아 창의도시 국가 코디네이터)

창의도시 사업 추진의 난점과 해결 방안

[대담자]



주세페 비아기니
(카라라, 창의지식재단 창립자)



정병훈
(진주, 포컬 포인트, 경상국립대학교 명예교수)



로니 로피스
(암본, 포컬 포인트, 파티무라대학 교수)



위티야 피통나푸
(수코타이, 포컬 포인트, 나레수안대학 교수)



비토리오 살모니
(파브리아노, 포컬 포인트, 이탈리아 창의도시 국가 코디네이터)

서 문

유네스코(UNESCO)가 창의도시 네트워크를 만들자는 제안을 한 것은 2004년이다. 그 당시 전세계적으로 이른바 세계화가 확산되고 있었다. 선진국의 표준화된 기준을 가지고 경제, 사회, 문화를 획일화하려는 시도였다. 세계화는 문화영역마저도 획일화하고자 하였다. 문화가 획일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유네스코의 기본 입장이었다. 다양한 문화들이 접촉하여 상호작용하고, 충돌하며, 교류하는 가운데서만 새로운 문화 창조가 가능하다는 생각이다. 문화의 창의성은 곧 다양성을 바탕으로 한다는 것이다. .

따라서 유네스코는 각 도시의 문화자산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문화산업을 발전시키고, 도시라는 단위에서 국제적인 교류와 협력을 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하였다. 나아가 경쟁을 지양하고 상호 간의 인정과 협력을 토대로 하는 도시들의 네트워크를 만들고자 하였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UNESCO Creative Cities Network, UCCN)이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는 2년마다 한 번씩 공예와 민속예술, 음악, 디자인, 미디어아트, 문학, 영화, 미식 등 7개 분야에서 새로운 회원을 선정하고 있으며, 2022년 현재 총 93개국, 295개 도시(공예와 민속예술 분야: 42개국 59개 도시)가 지정되어 있다.

유네스코는 2015년에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위한 유엔의 2030 의제를 발표하였다. 이 때부터 유네스코는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대해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과 혁신의 플랫폼 역할을 요구하였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이후에는 전 지구적인 도전에 대응하는 일, 기후변화에 대한 회복력을 갖추는 일에서 창의도시들 간에 지식과 경험, 그리고 실천을 공유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나아가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는 창의분야를 넘어서는 도시들 간의 협력과 협업을 통해서 코로나19 이후의 회복에 대한 문화의 기여와 도시의 미래 발전에서의 문화산업의 역할을 확대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는 다양성, 연대, 그리고 다국간주의(multilateralism)라는 유네스코의 근본적 가치를 지지한다.

I전 세계의 많은 도시들이 유네스코가 제시하는 근본 가치와 미션에 동의하면서,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 도시들은 사회, 경제, 환경과 더불어 문화를 도시 발전의 네 가지 기둥으로 삼고자 한다. 또 네트워크의 구성원이 된 이후에는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국제교류를 활성화하며, 다른 도시들과 지식과 경험, 그리고 좋은 실천 사례 등을 공유하고 있다. 회원 도시들은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지정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도시의 신인도를 높여주고 있다는 데 동의한다. 또 세계적인 네트워크의 일원이 되어 국제적인 협력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지속가능한 발전에 큰 힘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각 도시들은 가입 신청 당시 유네스코에 제안한 국제적 수준의 프로젝트와 지역적 수준의 프로그램을 수행해 감으로써 지역의 문화자산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도시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 있어서 문화활동을 통해서 유네스코의 가치를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려는 창의도시 사업은 여러 가지 난점들에 직면해 있다. 우선 도시의 의사결정 담당자들을 움직여서 문화와 창의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하는 일이 쉽지 않다. 창의도시 사업을 잘 진행하다가도 시장이나 거버넌스의 일부가 교체되거나 하는 경우, 사업이 중단되거나 연기되는 일이 적지 않다. 또 창의도시 사업을 위한 재원을 적절히 마련하기 어려워서 원래 계획했던 사업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문화 다양성과 사회적 포용, 불평등 해소 등 유네스코의 미션을 실행하는 일이 생각같이 간단치 않다. 문화와 창의성이 주도하는 문화정책이나 프로젝트를 도입한다고 해도, 그것이 지역의 문화산업을 육성하는 데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지역의 시민들과 특히 후속 세대들을 창의도시 사업에 관심을 갖게 하고 참여시키는 일도 녹록하지 않다. 다른 창의분야의 도시들과 교류하는 일, 교차사업이나 연계사업을 확대하는 일도 많은 경험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

어떻게 이러한 여러 가지 난점들을 극복해 가면서, 도시의 당면한 문제들을 문화자산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해결해 나가며, 창의도시로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해 갈 수 있을 것인가? 이번 호에서는 창의도시 활동에서 오랜 경험을 갖고 있는 여러 도시의 연락 담당자들을 패널로 모셔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토론하였다.

A. 총괄 문항

1. 창의도시 추진에서 각 도시는 지자체의 협조와 지원 미흡, 예산 확보의 어려움, 시민들에 대한 홍보 미흡, 시민들의 참여 부족, 문화산업 육성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 난점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귀 도시가 겪고 있는 가장 큰 난점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극복하고 있습니까?

위티아 피통나푸: 수코타이는 2019년에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UCCN) 회원이 된 후 다양한 난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첫째, 정치 선거에 따른 행정직의 변화로 지속적인 지원이 부족하여 UCCN 사명을 이행하기 위한 예산 할당뿐만 아니라 국제 참여와 네트워킹 참여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락 담당자가 상호 이해와 명확한 의사소통을 위해 지방정부의 새로 선출된 지도자들과 정기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수코타이의 경우 태국 북부 지역의 고등교육기관인 나레수안 대학(Naresuan University)의 주도 하에 공동 연락 담당자들(co-focal points)을 새로 두고 있으며, 이는 수코타이 UCCN의 이니셔티브이자 모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코타이 UCCN은 연락 담당자들을 자발적으로 지원하고, 네트워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도록 추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수코타이의 공동 연락 담당자는 나레수안 대학의 사명(교육, 연구, 공공 및 지역사회 참여, 문화 기반 활동 촉진)을 통합하고, 국내외 협력을 통한 UCCN의 사명을 이행하며, 자금 조달 기회를 활용하는 등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로니 로피즈: 음악 창의도시인 암본(Ambon)에서 창의도시를 개발하는 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예산 제도입니다. 작은 도시인 암본은 제한된 천연자원을 가지고 있어 도시의 수입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도시는 수입이 매우 적어서, 암본음악사무소(Ambon Music Office, AMO)이 관리하는 25개의 전략적 단계에 있는 기존의 모든 UCCN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없습

니다. 기존의 예산 자원은 이미 우선순위의 긴 목록에 올라와 있는 49개의 정부 사업에 분배되어야 합니다. 코로나19의 영향과 더불어 암본 시는 이러한 경쟁 예산을 수시로 줄이고 재할당해야 합니다. 지자체의 공약이 문화적 창의성을 미래 발전을 위한 원동력으로 삼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지 못한다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집니다. 이처럼 약속을 산발적이고 부분적으로 실행할 경우 예산 활용을 포함한 기존 프로그램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AMO가 개발한 전략은 “Sound”(음악)과 “Green”(환경)[이하 Sound of Green(SoG)이라 함]에 중점을 두면서, 서로 협력하고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입니다. SoG는 음악 관광과 숲 도시 개발을 기반으로 하며, SDG 11을 위한 해결책을 의미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해관계자들이 다양한 부문에 미치는 상승 효과는 예산기관(집계자)의 역할을 하는 이해관계자들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SoG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이행하기 위한 강력한 협력과 조정 활동으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관계를 “헥사 헬릭스 행위자들”(hexa-helix actors) (학계, 기업, 지역사회, 정부, 미디어 및 집계자)이라고 합니다.

주세페 비아지니: 1) 단기 비전 대 장기 비전: 우리가 유네스코 창의도시(UNESCO Creative Cities, UCC)와의 협력에서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지방정부와 창의 공동체 간의 조정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많은 경우, 이 문제는 지역 사업을 위한 예산 부족 때문이 아니라 정치인, 창의적인 사람, 시민이 목표를 설명하고 결과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시기와 언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정치인들은 단기적인 관점을 갖는 경향이 있으며, 문화 기반 사업에 전념하고 싶어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창의적인 사람들과 시민들은 시범 사업의 효과와 잠재력을 테스트하기 위해 단기적인 결과를 보고 싶어하면서, 동시에 공동체에 초기의 긍정적인 결과를 제공하는 이니셔티브가 장기적으로 지속되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들 간의 대화는 종종 매우 어렵습니다.

2) 상향식 접근방식: 두 번째로 어려운 점은 본질적으로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에게 포용

적이고 개방적인 상향식 접근방식을 가진 사업을 구상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심지어는 잘 고안된 사업까지도 유네스코 창의도시 지정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역사회의 참여를 충분히 끌어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 제안자와 사업 수혜자들이 결과를 얻는 속도가 종종 서로 달라서, 사업 관리자들은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을 안내하는 대신에 이미 성공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공동체 구성원을 끌어들이며 도움을 주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정병훈: 우리 도시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시민들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다는 점입니다. 2019년에 창의도시가 되어 벌써 3년이 지났지만, 우리 도시가 유네스코 창의도시인 것도 모르는 시민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도시 옆을 지나가는 고속도로 변에 “유네스코 창의도시 진주”라는 글자가 선명히 보이는 광고탑을 세워 두고, 주민센터를 비롯하여 주요 공공시설에 유네스코 창의도시 팻말을 붙여 놓았습니다. 또 저희가 지역적 수준에서나 국제적인 수준에서 수행하는 사업에도 늘 유네스코 창의도시 사업이라는 것을 홍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도시가 창의도시인 줄 모르는 시민들이 많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행사 때마다 평가회를 해 보면 시민들의 참여가 부족하였다는 것이 지적되곤 합니다. 물론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현상으로 시민들이 모일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적었고, 많은 행사가 중단되거나,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진 것도 중요한 원인이라고 보입니다. 앞으로는 지역 언론에 대해서 좀더 협조를 구할 예정입니다. 각종 SNS를 이용한 홍보도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직접 관련된 일이 아니면 별로 관심있게 주목하지 않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각 가정에 창의도시 안내 리플릿이 직접 전달되도록 해 볼 생각입니다. 또 시에서 간행하는 정기간행물에 창의도시 소식을 많이 게재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저희 도시는 지자체가 창의도시 사업에 대해서 행정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을 잘해 주고 있는 편입니다. 문화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장기적인 플랜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비토리오 살모니: 유네스코에서 가장 일찍 지정된 이탈리아 창의도시들은 자신들의 입지를

구축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행정기관이나 문화기관과 여전히 고군분투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더 높은 수준의 지원과 자금 조달 그리고 프로젝트 구축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 창의도시의 문화적 권리, 문화 다양성, 사회적 포용, 불평등 해소 등의 이념적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귀 도시가 창의도시 사업을 통해서 가장 실현하기 어렵다고 여기는 목표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러한 난점은 어떻게 극복될 수 있을까요?

정: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는 유엔의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를 실현해 가는 플래그십 플랫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성, 연대, 그리고 다국간주의라는 근본적 가치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사회적 포용을 강조하여, 시민들 사이의 문화적 격차와 불평등 해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시도 이러한 유네스코의 가치를 지지하고 이를 실현하는 도시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강조되고 있는 시민들의 문화적 권리를 신장하기 위한 문화정책을 도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올해 진주에서 개최한 세계민속예술비엔날레의 주제가 “다양성—창의성의 토대”였듯이, 문화의 다양성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 사회적 포용과 불평등의 해소를 위해서는 문화적 취약지역에 문화예술단체를 직접 보내서 공연하게 하는 “문화예술택배”라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문화권 신장을 위해서는 1인 1예능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전히 어려운 부분이 사회적 포용과 불평등을 해소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대부분의 문화적 인프라가 도심에 있기 때문에, 농촌지역에서는 그런 시설에 접근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시민들의 문화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시설들이 각 지역에 골고루 설치되어야 합니다. 이 일에는 역시 상당한 재원이 투입되어야 하고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성평등의 문제로 적지 않은 난점들이 있습니다. 진주시에는 여러 문화와 사회 영역에서 젠더 간의 불평등 현상이 존재합니다. 그러한 문제들을 잘 해결해 온 다른 도시의 사례들을 검토하고 분석하여 우리 시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로피즈: 경제적 불평등은 주요 요인이며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높은 경제적 불평등은 1) 환경적, 2) 사회적, 3) 문화적, 4) 정치적, 5) 공간적, 6) 교육적 격차 등 6가지의 격차를 만듭니다. 암본 은 빈곤과 실업률이 높은 도시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2017~2021년의 지니계수가 각각 0.58, 0.57, 0.56, 0.55, 0.56으로 산출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빈부 격차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수치는 국가 지니계수보다 높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암본 시의 빈곤율은 증가했습니다. 중앙통계청(BPS)의 데이터를 인용하면 2021년 빈곤율은 23,670명(암본 전체 인구 347,288명 중 5.02%)에 이를 것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암본의 경제 성장은 5.78%에서 -1.95%로 둔화되었습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개발 예산에 다시 집중되면서 암본 시 정부는 빈곤을 완화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공공서비스 혁신은 암본음악사무소(AMO)이 수행하는 획기적인 전략으로, 지역사회의 창조경제를 강화하여 다른 하위 부문의 성장을 촉진하는 주요 견인차로 음악에 의존함으로써 독창적이고 새롭고 독특한 혁신의 형태로 격차를 극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혁신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생존하고 적응할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개념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경제 성장과 고용 기회를 장려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혁신의 대상은 10개의 음악 관광명소를 중심으로 5개 이상의 지구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음악 창조경제 행위자들을 활용한 지역 음악 창의산업은 47.8%가 크게 증가하였고, 그 결과 비음악 창조경제 행위자들이 96.36% 증가했습니다(2019-2021년).

피통나푸: 수코타이는 SDG 10(불평등 감소)을 주요 목표 중 하나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평등을 줄이는 동시에 성별, 소득, 연령, 교육, 능력 등에 관계없이 모든 이를 위한 사회적 포용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코타이 UCCN 사명 중 하나로는 모든 지역 공예 창작자와 기업가가 새로운 디지털 시장에서 상품과 비즈니스에 대한 디자인 적용 기술과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학습기회를 창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제약으로 인해 수코타이 9개 구역 모두에서 시행할 수 있는 학습 이니셔티브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더욱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수코타이와 그 주변 지역에서 창의적 기반의 경제 활동을 조직하기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따라서 하이브리드 학습 플랫폼이라는 전략적 접근 방식을 통해 특정 워크숍이나 학습 활동을 현장과 온라인 이벤트 모두에 적용하여 현지 공예가가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원격지에서 이러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각 구역이 학습 IOT(사물인터넷)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살모니: 이탈리아의 장기화된 경제 위기로 공예, 문화·창의 부문은 일방적으로 타격을 입었고, 이로 인해 기업가들과 제대로 관계를 맺고 민간부문과 효과적인 프로젝트를 구축하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비아지니: 우리는 후보도시 신청 과정에 참여하면서 지역사회의 모든 다양한 범주의 창의적인 사람들을 포함시키기 위해 명확한 규칙을 설정했으며, 이 신청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모든 단체들이 두 개의 지역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 1) 전략위원회: 후보도시의 주요 문화재를 활용한 지역개발 4개년 계획을 가입 신청서에 작성하고, 그 계획이 도시개발 계획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 2) 운영위원회: 사업 개발 초기 단계부터 지방정부, 시민사회, 학계, 비영리단체, 창의공동체 등이 참여하여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피드백과 제안을 받는다..

이 두 위원회의 목적은 연령, 성별, 종교, 사회적 및 교육적 지위 등에 관계없이 모든 지역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키고 경청하며, 후보도시의 문화재를 인정하는 외부 지지자들을 최대한 많이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위원회들은 창의도시 지정을 관리하는 시 부서와 협의 역할을 하는 조직에 통합되거나, 창의도시 추진위원회(민관 협력 조직) 또는 지정 관리에 대한 책임을 전담할 외부 문화단체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 위원회가 없는 경우, 후보도시 신청 과정은 유네스코에서는 성공하더라도 지역사회 내에서는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어서, 가입 신청서에 명시되어 있는 (최대) 6개의 사업을 조직하고 자금을 조성할 만큼 충분한 모멘텀을 만들어 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시민들(창의적인 사람들이든 아니든)이 창의도시 지정에 대한 진정한 가치와 지역사회에 대한 잠재적이고 장기적인 이익을 이해하지 못할 경우 지정은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접근방식을 사용하지 않은 도시들이라도 지정 후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고 참여시킬 수 있으며,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정을 관리하는 조직과 협력하면서 (최대) 6개의 사업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B. 지속가능한 발전과 창의도시

3. 당신이 사는 도시는 어떤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창의도시가 되려고 하였습니까? 창의도시가 됨으로써 당면과제 해결에 실제로 도움이 되었습니까?

비아지니: 그동안 분석된 많은 사례들 중에서 UCCN 내에서 일반적인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 두 가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례 1: 카라라, 유네스코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이탈리아, 2017년 지정)

카라라(Carrara)는 대리석 채취와 채석에서 2,000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도시로 로마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대리석을 예술작품으로 변모시키는 장인 기술과 예술성에 대한 독특한 지역 전문성은 지역 창조자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경제적 지속가능성의 부족으로 인해 수년에 걸쳐 쇠퇴해 왔습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지정 이후 처음 4년 동안 후보도시 활동과 가입 기념 활동을 시행하면서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과제를 해결했습니다..

프로젝트 1: “일하는 손”(Hands at Work)은 시에서 관리하는 온라인 프로젝트로, 카라라의 예술가와 장인들은 자신들의 작업이 현재 어떻게 지니어스 로사이(Genius Loci)를 표현하고 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이미 지역, 국가, 국제 단계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2: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동인이라 할 수 있는 「예술가와 장인의 역할에 관한 카라라 선언」(Declaration of Carrara on the Role of Artists and Artisans)은 상향식 접근방식을 통해 공식적으로 승인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지역 창조자들은 당면한 과제를 발굴하고 창의도시 지정이 지역사회에 가져올 기회를 함께 논의하기 위해 지방정부, 시민사회, 학계, 비영리단체 그리고 창의공동체의 참여를 요구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중장기 성과는 6가지 우선순위로 정리되어, 최근에 임명된 신임 시 정부에 전달되고 중장기 계획에 포함되었습니다. 이 사례의 경우, 카라라 시는 2017년에 신청 서류를 준비하면서 모든 수혜자를 완전히 참여시키지는 못했지만, 모든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히 대화를 나누면서 그들의 요청을 도시의 중장기 개발계획에 포함시켰습니다.

2) 사례 2: 베르가모, 유네스코 미식 창의도시(이탈리아, 2019년 지정)

베르가모(Bergamo)와 오로빅 밸리(Orobic Valley)는 1,000년의 장인 치즈 제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곳으로, 단순한 재료와 맛의 혼합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자연 서식지의 보전을 선호하고 도시와 비도시 경제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순환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의 복잡하고 훌륭한 예입니다. 이 도시가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지정되고 지역의 문제를 조사하고 해결하기

위한 지역 위원회가 활성화되기 전에는 양치기부터 치즈 제조업자에 이르기까지 장인 치즈 가치사슬의 모든 구성원들이 지역 보물로 인정받지 못했고, 따라서 치즈 생산에 전념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가입 신청 과정은 이러한 부정적인 경향을 뒤집고 장인의 치즈 제조 과정과 관련된 전문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특화된 농업지구(특정 재원으로 중앙정부가 지원)를 조성하고, 독특한 서식지를 변모시켜 오로빅 산맥의 높은 산악 목초지에서 베르가모 알타의 역사적인 도심까지 뻗어 있는 치즈 가치사슬을 따라 문화관광을 유치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베르가모 시는 “장인 치즈”(Artisanal Cheese) 프로젝트의 성과를 국내외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베르가모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처음부터 참여하여 도시의 6가지 우선순위에 기여함으로써 도시와 그 주변 지역에 이익이 되는 공동 프로젝트가 탄생했습니다.

살모니: 이탈리아는 오랫동안 문화와 환경보호라는 두 가지 동인과 도시 재생 정책을 통합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탈리아 창의도시들은 더 넓은 UCCN 커뮤니티와의 참여에 특히 적합한 총체적인 접근방식을 사용하는 다차원적이고 다선형적인(multi-linear) 방식으로 도시 재생 정책에 접근하고, UCCN이 제공하는 자산과 연락 정보를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정: 우리 도시가 창의도시가 되고자 한 것은 크게 3가지 당면 과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원도심 공동화 현상입니다. 혁신도시가 개발되어 공공기관이 이주해 오고, 도시 인근에 새로운 거주 지역이 개발되면서, 원도심이 공동화되는 현상이 뚜렷했습니다. 둘째는 도심지역과 농촌지역의 경제적,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는 과제가 있었습니다. 셋째는 뒤늦게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역사와 문화의 도시라는 도시의 정체성이 훼손되고 있었습니다.

우선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의 일원이 되면서, 시민들의 문화적 활동이 증가하고, 문화단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문화행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역사와 문화의 도시라는 도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도심과 농촌 지역의 문화적 격차 해소와 원도심 공동화 현상 해결은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

다고 생각합니다.

4. 창의도시들은 지역의 문화자산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려는 도시를 말합니다. 또 창의도시가 되면 창의산업 진흥, 창의인재 양성, 창의적 분위기 조성, 국제교류의 활성화, 불평등의 해소 등에 도움이 된다고들 말합니다. 귀하의 도시에서 가장 관심을 가진 목표는 무엇이었으며, 창의도시로 선정된 일은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하였다고 보십니까?

로피즈: 암본 시는 창의도시가 되면서 풍부한 음악 문화로 인해 지역, 국가, 국제적 차원에서 시의 가시성이 높아졌습니다. 우리 시의 음악 문화는 지역사회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정부가 다양한 사회·문화, 경제, 환경, 교육 의제를 실행하는 데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평화를 위한 도구인 음악 창의도시로의 비전은 인종, 민족, 종교 간의 다양한 사회적 관계들이 결속하여 많은 격차를 해소하는 데 있습니다. 암본은 지역사회 간 예술과 문화의 평등을 시작으로, 지역, 국가, 국제적 차원에서 네트워킹을 이어갈 수 있는 음악 창의도시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등학교 5개교와 중학교 5개교에서는 음악가들을 음악 교사로 계약하거나 국내외 국제 가상 이벤트에서 음악가들을 지원하는 등 10개의 DTW 음악 투어에 음악과 비음악 창조 행위자들이 참여하는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암본은 창의도시로서 창의성을 이행해 왔습니다. 따라서 음악, 요리법 등을 비롯하여 암본 시의 최대 비즈니스 유형을 기반으로 각 하위 지구의 창의적인 경제 잠재력을 분석할 수 있고, 또한 마케팅(61.54%), 금융기관(82.24%), 제품 아이디어(34.56%), 인증(28.68%), 과학 벤처(47.19%), 지원(63.94%), 홍보(47.61%), 교육센터(33.47%), 연구센터 및 개발센터(35.72%) 등을 통

해 암본 시의 생태계의 준비 상태를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암본 시는 국가 차원에서 UCCN 창의도시(2022년 기준 295개 도시)와의 네트워킹을 활용하여, 인도네시아의 여러 도시 또는 지역이 UCCN 회원이 되도록 돕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차원에서는 음악가와 전통음악을 알리고 다른 UCCN 회원도시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음악 창의도시와 UCCN 창의도시 간에 협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피통나푸: 2019년에 UCCN의 회원이 된 이후 수코타이는 UCCN 사명을 실행에 옮기겠다는 약속에 따라 공예와 민속예술 분야에서 수코타이 UCCN의 5개년 실행계획(2021-2025년)을 수립하고 이행했습니다. UCCN에 가입한 수코타이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공예와 창의 부문을 장려하여 SDGs(SDG 1: 빈곤 퇴치, SDG 8: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 성장, SDG 9: 산업, 혁신과 인프라, SDG 10: 불평등 감소)를 달성하기 위해 도시 개발 메커니즘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특히 보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SDG 11: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간부문, 공공부문, 사람들 간의 파트너십 강화는 모든 사람들이 UCCN 사명에 참여하도록 하는 중요한 메커니즘 중 하나입니다.

살모니: 총체적인 접근방식을 통해 이탈리아 창의도시들은 통합적인 지속가능발전을 기반으로 창조적 동력의 균형을 지금까지 유지해왔습니다. 따라서 창의적인 정책이 다양한 행정 분야에서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이처럼 파브리아노와 UCCN의 파트너십은 SDG 17의 ‘글로벌 파트너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수년간의 경제 위기를 겪은 파브리아노는 회원도시 자격으로 인해, 특히 2019년에 개최된 UCCN 연례회의 덕분에 국제적 지위를 회복하고 더욱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C. 창의도시 추진 거버넌스와 지자체

5. 창의도시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 담당부서를 두어서 창의도시 사업 추진을 전담하게 할 수도 있고, 문화재단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도 있으며, 창의도시 추진위원회 등 민관 협력 기구를 설립하여 창의도시 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귀 도시에서는 창의도시 추진을 위해서 어떤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방식에서 비롯되는 난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이를 어떤 방식으로 해소하고 있습니까?

살모니: 파브리아노는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거버넌스 모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운영 관리는 민간재단과 같은 외부 이해관계자들이 맡고 있으며, 이들은 연락담당자(focal point)와 상설 사무실을 관리합니다. 시 정부는 전략적 지침을 작성하고 결과를 평가합니다.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의 어려운 조정기를 거친 후 파브리아노는 다시 조화를 이루며 조직적 역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정: 우리 도시는 창의도시의 거버넌스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매우 고심해 왔습니다. 창의도시로 지정되었을 때는 지자체에 창의도시팀이라는 부서가 있었고, 두 사람의 공무원이 창의도시 사업의 실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업 중에 많은 부분을 창의산업진흥회라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보조사업으로 위탁했습니다. 그리고 창의도시 운영위원회라는 회의체가 창의도시 사업에 대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입안했습니다. 그런데 민간단체의 경우, 사업비는 시에서 지원을 받지만 운영비와 인건비 등을 지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때문에 우리 시에 문화관광재단이 설립되었을 때, 재단 안에 창의도시추진단이라는 부서를 만들어서, 창의도시 사업의 대부분을 재단에 위탁했습니다.

그런데 창의도시 사업이 재단에 위탁되자 두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첫째는 민간이

참여하는 창의도시운영위원회의 역할이 축소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시는 창의도시 사업에서 민간의 역할이 컸고, 그것이 장점이었는데 말이지요. 또 재단에다 사업을 전부 위탁하고 지자체에는 창의도시팀 자체가 없어지고 전담직원조차 두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단이라는 기관이 관의 감독을 받는 기관으로서 갖는 경직성 때문에 창의적이고 융통성 있는 창의도시 사업에 적합하는 않은 부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또 재단이 고유하게 진행하는 다른 지역문화 사업들과의 차별성을 잘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일부 사업을 다시 지자체로 가져와서 직접 실행하기로 했습니다. 여전히 거버넌스의 문제는 커다란 숙제가 되고 있습니다.

비아지니: 저는 유네스코 미식 창의도시인 투손(미국, 2015년 지정)이 따르고 있는 접근방식을 검토하면서 문제를 해결해볼까 합니다.

투손(Tucson)은 복잡한 인류학과 고고학 주장을 바탕으로 창의도시 가입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지역의 요리법은 수세기에 걸쳐 그리고 지금까지 수많은 이민자들이 투손을 새로운 고향으로 만들기 위해 기여한 노력 덕분에 반건조 지역에서 3,500년간 이루어진 지속적인 농업과 인류의 진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손 시는 가입 신청 서류를 준비하고 이 고유한 창의적 지식과 연관된 지역사회의 요구를 관리할 조직이 구성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즉시 특별 비영리단체를 지정하여 가입 관리를 전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지방정부, 시민사회, 학계, 비영리단체, 투손의 독특한 요리법을 구성하는 다양한 창의공동체의 대표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몇 가지 예를 들자면, 토호노 오오덤(Tohono o'Odham) 종족과 기타 지역 원주민인 멕시코인, 중국인 및 유럽인 등). 비영리단체와 도시 간의 관계는 의사결정 과정에 도시가 거의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매우 느슨한 편입니다. 그 결과, 비영리단체는 창의공동체에 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목표와 목적을 설정하는 데는 아주 자유롭지만, 제안된 사업을 위해 시에서 직접 자금 지원을 받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와 비영리단체가 충분히 소통하여 서로를 이해하고 미션과 정책을 일치시킬 수 있도록 핵심 성과 지표에 대한 일련의 질적, 양적 측정이 있어야 합

니다. 투손 시는 지정된 지 몇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비영리단체를 위한 주요 자금원이 아니며 정책 조정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투손이 사용하는 모델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창조자들에게 최고의 장기적인 결과에 도달할 수 있는 큰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델은 5년마다 도시를 관리하는 하나의 정치적 비전에 국한되지 않고, 단기적인 결과에 압박을 받지 않는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으로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로피즈: 암본 시에서 UCCN 프로그램을 위한 거버넌스는 시 정부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UCCN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해 구성된 암본음악사무소(AMO)에 의해 수행되고 있습니다. AMO는 암본 시장이 직접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AMO의 주요 업무는 전략 수립, 음악도시 구현, 지역적·국가적·국제적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4년마다 유네스코 평가를 위한 문서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AMO는 음악교육, 음악 커뮤니티, 음악 규제, 음악 비즈니스와 관련된 25개의 전략적 단계를 기반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AMO의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어려움으로는 예산 집행과 암본 시 정부 범위 내에서 여러 지역기구 조직과의 시너지 효과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모든 기관이 궁극적인 목표로 창의도시 개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음악적 창의성은 여전히 지역의 소득 증대에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도시에서 벌이고 있는 운동들은 도시 공동체의 복지를 증진하는 창조적인 경제력으로서 음악적 창의성을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AMO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암본 시의 장기 업무 계획에 UCCN 프로그램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AMO는 중앙정부(관광·창조경제부, 교육부, 문화부, 연구·기술부 등), 인도네시아 창의도시 네트워크(ICCN),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UCCN 회원들과 협력을 해야 합니다.

D. 시민들의 참여와 홍보

6. 창의도시에서 시민들의 창의적 참여는 도시의 문화자산과 더불어 창의도시 사업 추진에 필수적 요소라고 생각됩니다.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주요 내용과 성과가 시민들에게 보고되고 환류되어야 합니다. 귀 도시에서 창의도시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는 만족할 만한 수준에 있습니까?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그 원인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까요?

정: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일이 커다란 과제입니다. 창의도시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전혀 만족스러운 수준이 아닙니다. 창의도시 사업의 하나로 지난 4년간 전개해 온 민속춤 보급 활동은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갑니다. 매년 1,000명 정도의 시민들이 진주의 전통춤을 배우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분들은 진주가 창의도시라는 것과 문화자산을 전승하고 생활 속에서 즐기는 일을 맛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과 올해 있었던 전통공예비엔날레나 세계민속예술비엔날레에는 시민들의 참여가 부족했습니다. 역시 홍보가 부족했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이고요. 근본적으로 문화와 창의성을 통해서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자는 생각이 시민들의 정신에 자리잡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도시들의 사례에서 배우고 싶습니다.

살모니: 파브리아노는 2019년에 공개 회의, 오픈 경연대회, 협회의 행사와 주제 제안 등으로 조직된 연례회의를 개최하였는데, 그 회의에 시민의 참여도가 아주 높았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줄어들었지만, 지진 이후 재건에 창의도시가 직접 참여한 덕분에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브리아노 시는 UCCN 정책과 기회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온·오프라인에서의 소통을 개선할 것입니다.

로피즈: 암본 시의 경우,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이처럼 참여가 성공적인 이유는 암본 시의 사람들이 이미 문화적으로 음악을 만들고 노래하는 데 관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역사회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일은 지역사회의 참여를 동원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 확보에 크게 좌우됩니다. 따라서 음악은 타고난 능력일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경제를 향상시키는 데 영향을 미치는 보다 방법론적이고 전문적인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도록 지역사회의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이 암본 시의 전략입니다. 10개의 시범사업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음악교과 의무 교육과정 프로그램은 더 나은 복지를 위해 지역사회의 참여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영향으로 모든 성별의 어린이와 부모 등이 참여하는 지역의 창의공동체를 포함한 창조자본(Creative Capital) 창출이 발생했습니다. 다시 말해, 비음악 창조경제 행위자 5,300명, 가수 133명, 기타 연주자 36명, 키보드 연주자 56명, 베이스 연주자 29명, 드럼 연주자 15명, 색소폰 연주자 4명, 편곡자 6명, 작곡가 55명, 래퍼 45명, 힙합 100개 그룹이 형성되었고, 또한 780개의 합창단, 17개의 하와이안 밴드, 45개의 밴드, 23개의 사왓/하드랏(sawat/hadrat) 그룹, 1개의 대나무 관악단, 15개의 토토투부앙(totobuang, 말루쿠의 전통 합주악기) 그룹, 1개의 바이올린 앙상블, 49개의 스튜디오, 80개의 브라스 밴드와 120개의 아카데미가 생겨났습니다. 이처럼 창조자본은 46.26% 증가했습니다. 이 밖에도, UNPATTI(Universitas Pattimura) 캠퍼스에 지어진 국제 프로 리코딩 스튜디오(International Pro Recording Studio) 형태의 크리에티브 아레나(Creative Arena) 1개, 전국적으로 총 850편의 지역 대중가요를 제작하는 8개의 중형 스튜디오와 25개의 홈 스튜디오, IAIN 캠퍼스 내 민속음악 공연장 1개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음악가나 지역사회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창조공간은 60.47% 증가했습니다.

E. 창의도시 네트워크와 국제교류

7. 각 도시들은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속함으로써 같은 서브네트워크들의 다른 도시들과 지식, 경험, 그리고 실천을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과연 네트워크 가입은 기대한 만큼의 국제교류, 지식과 경험의 공유에 기여했다고 보십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 주된 원인은 어디서 발견될 수 있을까요?

피통나푸: 공예와 민속예술 분야의 UCCN 회원으로서 수코타이는 창의부문을 통해 도시 개발에 SDGs를 통합하는 모범 사례를 배우고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졌습니다. 또한 UCCN 사명을 달성할 수 있도록 수코타이를 지원하기 위한 특정한 이니셔티브들이 가입 신청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공예와 민속예술 분야의 UCCN 서브네트워크 회원들의 모니터링 보고서 검토에 참여함으로써 각 도시가 SDGs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자신의 창의분야에서 그리고 다른 창의분야에 걸쳐서 어떻게 노력해왔는지를 배우는 데 통찰력 있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창의도시 간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지식과 연구 또는 기술과 혁신이 이전됨에 따라 국제협력이 이루어지면, UCCN 회원 가입이 보다 지속가능한 미래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살모니: 파브리아노는 UCCN 덕분에 국제협력의 중요한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2009년 경제 위기로 인해 어려운 고립 시기를 보낸 후, 파브리아노는 UCCN을 통해 클러스터 내에서 그리고 클러스터 간의 이니셔티브에 장기간 참여함으로써 강력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었으며, 2019년 연례회의가 그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또한 UCCN 활동은 역량 구축, 연계 사업, 과학 연구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창의도시들은 2년 전에 설립된 네트워크에 가입되어 있고, 현재 파브리아노는 회의와 연락처, 솔루션, 모범 사례의 교류를 위한 연락 담당자이자

국가위원회의 중재자로 조정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 저희 도시는 창의도시 사업의 하나로 2020년부터 『International Journal of Crafts and Folk Arts』를 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브라질 산토스에서 개최된 서브네트워크 회의에서 상당한 호응이 있었고, 전체 네트워크 회의에서도 소개되었습니다. 이 저널의 목표가 바로 각 창의도시들의 지식과 경험, 그리고 실천을 공유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 도시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저널이 우리 서브네트워크의 교류 매체의 일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다른 창의분야 간의 교류에도 기여했으면 합니다. 저희가 올해 개최한 세계민속예술비엔날레와 레지던스 프로그램도 상당히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합니다. 비엔날레 7개 도시, 레지던스에 3개 도시의 예술가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네트워크에 가입하지 않고는 이런 수준의 국제행사들을 개최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진주시민들과 참여도시의 예술가들이 문화의 다양성이 창의성의 토대임을 함께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F. 창의도시 분야 설정과 타 기관과의 협업의 난점

8. 각 창의도시는 하나의 서브네트워크에 속해 있습니다. 즉 창의도시들은 그것의 기반이 되는 한 가지 창의분야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분야 설정이 다른 분야와의 균형 있는 발전 혹은 다른 분야 도시와의 교류에 장애가 되지는 않습니까?

살모니: 아니요. 공예와 민속예술 클러스터는 가장 많은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매우 능동적입니다. 또한 이 클러스터는 UCCN의 광범위한 개편에 영감을 줄 수 있는 거버넌스 혁신과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JEONG: 올해 진주에서 열렸던 공예와 민속예술 서브네트워크 연차회의의 주제는 바로 “창의분야들 간의 융합과 협업”이었습니다. 지난 ‘산토스 제13차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연차회의 결론’에서도 “각기 다른 창의분야를 넘나드는 이벤트, 교류사업, 연계사업을 통해서 창의분야 간의 협력과 교차협력의 기회를 찾으려는 노력을 강화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창의분야에 특히 많은 문화자산을 가지고 있어서 특정한 서브네트워크에 가입하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분야의 발전만을 강조해서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우리가 공예와 민속예술 분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음악, 영화, 문학, 디자인, 미식, 미디어 아트 등과 교류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분야들을 함께 균형 있게 발전시켜야 합니다. 어떤 한 분야만을 강조하는 것은 그 분야 자체의 발전에도 장애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러한 교류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각 국가의 국가위원회, 그리고 유네스코의 창의도시 사무국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도시의 사업들을 서로 소개해 주고, 연결해 주는 일을 좀 더 강화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연차회의에서 협업과 융합의 좋은 사례들이 많이 발표되었으면 합니다.

피통나푸: 태국의 도시들이 UCCN 가입 신청을 하기 전에 관련 창의분야를 선택하도록 코칭한 경험을 통해 저는 적절한 의사결정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수코타이는 2019년에 UCCN 가입; 팻차부리는 2021년에 UCCN 가입; 난(Nan) 시). 다른 도시들이 상호 합의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특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해당 창의분야를 선택하기 전에 각 도시는 자신의 창의분야에 대한 의사결정 시 딜레마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저는 도시의 앞과 뒤를 모두 살펴볼 것을 제안합니다. 전자는 선택한 창의분야가 특정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달성하기 위해 도시의 잠재력을 넓힐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고, 후자는 도시의 문화적 맥락과 선택한 창의분야가 다른 도시와 다르다는 점을 보여줄 만큼 고유한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2단계: 창의분야를 선택한 후 검토 과정에서 각 도시마다 특정한 SDGs에 따라 해결해야 할 우선순위가 다르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선택한 창의분야가 도시의 문제와 미래 과제 해결을 위한 주요 UCCN 도시 메커니즘으로 추진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 파트너 간의 추가 논의가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선정된 개발 창의지역에 대한 예상 기여도가 한정된 주민 집단의 이익보다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단계: 특정한 창의분야를 선택한 후 잘못된 인식을 피하고 모두의 참여를 유도하며,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대중이나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면서, 도시가 6가지의 다른 창의분야와 함께 선택한 창의분야에 대해 어떻게 일할 것인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각 도시가 선택한 창의분야만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필요한 경우, 도시는 특정한 SDGs를 달성하기 위해 다른 창의분야에 걸쳐서 창의성을 지원해야 합니다.

9. 귀 도시의 교육기관, 예술문화단체, 언론기관 등은 귀 도시의 창의도시 사업에 어떻게 참여하고 있습니까? 창의도시 사업에서 이 기관들 사이의 연계와 협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요?

비아지니: 저는 서로 완전히 다른 두 개의 클러스터인 공예와 민속예술(카라라) 그리고 미식(투손)을 분석하면서 이 질문에 답하고 싶습니다. 첫째, ‘학술적 지식’에 중점을 두고 있는 이탈리아의 경우 교육기관들은 주로 중앙정부의 규제를 받고 자금 지원을 받으며, 중앙정부가 설정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둘째, 미국의 경우는 ‘실용적 지식’에 대한 특정 지역의 요구를 지원하기 위한 재단들이 정부 규제, 자금 조달, 프로그래밍을 조정하고 보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사례 1: 중앙정부의 교육에 대한 강력한 개입

카라라의 창의공동체는 지역 교육기관들과 상호 유익한 협력을 구축하는 데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카라라 선언」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지만, 교육과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로 지역 장인과 산업 부문에 필요한 전문 교육의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2개의 전문 기술 공립학교조차도 차세대 지역 예술가나 장인을 양성하는 데 필요한 특정한 실용 기술에 일부 시간만을 배당할 수 있기 때문에, 신규 졸업생은 지역 기업에 즉시 취업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지역의 국립미술원(Academia di Belle Arti, 대학 수준의 미술학교)은 고도로 전문화된 과정을 제공하므로, 지역 기술학교에서 습득한 기본 지식은 충분히 진학 준비 교육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기술학교 졸업 후에 교육과 훈련을 계속할 수 없어서, 대신에 저임금의 지역 일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역 지식을 다음 세대로 전수하는 데 문제가 되는 교육시스템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창의적 지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길고 복잡하며 종종 무급인 견습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새로운 세대는 석공 분야에서 경력의 기회를 추구할 수가 없습니다. 「카라라 선언」에 요약되어 있는

권고사항은 지역사회가 협의한 것으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카라라 시는 이 권고사항에 따라 최근에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약 35,000명의 작은 마을인 카라라에서 지역 언론은 국내외 관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므로 협력의 중요한 정보원이 되지 못합니다. 대기업이나 드물게는 지역 예술가와 장인들만이 국내외 언론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지역 재단을 비롯한 기타 문화단체들은 창의적인 개인들을 위해 보조금의 기회를 창출하고, 지역 행사나 박람회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도시 관리자는 지속적인 협력과 컨설팅을 위한 규칙을 수립하여, 지역 재단의 목표와 창의도시의 목표 사이에서 공통된 비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2) 사례 2: 재단의 교육에 대한 강력한 개입

투손의 창의공동체(농부, 목장주인, 채집인, 음식 트랜스포머, 요리사 등)는 카라라의 창의적인 사람들보다 좀 더 집중적인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와는 달리, 미국의 기술학교 교육과정은 실용적인 학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정한 요구(예: 건조한 토지 환경)에 맞게 조정이 되기도 합니다. 지역 재단이나 기부자들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이 교육과정은 기술학교, 전문대학, 대학 간의 상호 작용을 통해 학생들이 학업 주기를 마친 후 즉시 지역 시장에서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식 기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급 일자리의 기회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식 가치사슬에 따른 일자리와 관련된 저임금이 지역 지식을 새로운 세대로 전수하는 데 미치는 유일한 부정적인 영향일 수 있습니다. 투손의 지역 언론은 카라라의 지역 언론과 동일한 한계를 겪고 있지만, 전문적인 지역 블로그나 출판물은 지역 행사와 창의공동체에 좀 더 주목함으로써 공동체 내에서 인식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관광청은 지역의 독특한 미식 장면을 기록하고 홍보하기 위해 영화나 다큐멘터리 제작자 등을 포함한 국내외 언론의 관심을 끌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창의도시 지정은 투손 관광청의 예산에 뜻밖의 횡재를 가져다주었습니다. 투손은 유료 광고 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없어졌고, 많은 언론 매체들이 미국 최초의 유네스코 미식 창의도시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무료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창의도시 지정을 관리하는 비영

리단체의 현명한 조직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사회가 지역사회의 요구를 잘 알고 있는 지역 교육기관, 지역 관광청, 지역 비영리단체 중에서 구성원을 선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살모니: 지역 문화협회들이 2019 UCCN 연례회의에 참여한 이후 창의도시 사업에 관여하는 일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참여는 마이크로 협회나 마이크로 사업들과도 공유되고 있습니다.